

# 창작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원정책으로

culture | art

이번 『문화예술』 특집기획에서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여러 의견을 모아 보았다. 논의는 크게 현황 및 실태, 정책적 대안, 해외사례로 구성된다. 현황 및 실태 부분에서는 새 예술정책의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현황에서 시작하여 국공립 및 사립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후 정책적 대안 부분에서는 지역의 목소리와 목동 예술인회관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아 보았으며, 해외 사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살펴보았다.

박신의 본지 편집위원, 경희대 교수

## 노동으로서의 창작활동 보장

작가에게 창작스튜디오는 무엇인가? 선뜻 답하기가 수월치 않다. 질문이 너무도 본질적이어서 그럴까? 어쩌면 질문은 마치 왜 우리는 생각을 하는가, 라는 내용처럼 들리기도 한다. 아니면 왜 우리는 숨을 쉬는가, 라는 질문처럼. 미술인들에게 작업실은 사실상 숨쉬는 공간이다. 숨을 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작업실이다. 그 공간은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키우고 성장하게 하는 어머니의 배속과도 같은 곳, 혹은 실험소 같은, 혹은 창작의 모든 과정을 노동으로 녹여내 작품을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은 곳이다. 또 작품 제작의 모든 생각과 철학, 개념들을 중인하는 아카이브와도 같은 곳이다. 그리고 작가가 숨을 쉬니, 작품도 숨을 쉬게 되는 허파와도 같은 곳이다.

그래서 작가에게 작업실은 몸의 일부분이자 살아가는 일의 연장인 것을, 이렇듯 다시 묻게 되니 뭔가 생경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작가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작업실을 따로 구해야 하는 이중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말이다. 물론 그나마 교수직을 갖고 있는 경우거나, 아주 일부분이지만 전업작가로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미술인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젊은 작가들의 경우 작가의 길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임에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여서 더욱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넋두리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가의 창작활동의 사회적 가치, 혹은 노동으로서의 창작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당당하게 말하는 계기로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창작 지원은 주로 작가의 전시회나 프로젝트 등 어떤 성과물을 중시하는 지원이었다. 하지만 창작환경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창작활동의 기본 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지원정책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창작활동의 기본 여건을 지원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당위성이 주어진다. 그것은 예술가의 사회적 영향력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원정책이 ‘소액다진’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창작 지원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창작환경이라는 창작의 기반 마련에 대한 지점으로 그 정책적 틀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 창작스튜디오 정책의 쟁점과 대안

이번 『문화예술』 특집기획에서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여러 의견을 모아 보았다. 논의는 크게 현황 및 실태, 정책적 대안, 해외사례로 구성된다. 현황 및 실태 부분에서는 새 예술정책의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현황에서 시작하여 국공립 및 사립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후 정책적 대안 부분에서는 지역의 목소리와 목동 예술인회관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아 보았으며, 해외 사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살펴보았다.

일단 이 모두의 의견을 통해 던져지는 쟁점을 모아 보면,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에 따른 현재 국공립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폐교 활용과 관련한 개선안의 강구,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의 창작촌 및 임대 아파트 형식의 작업실 건립, 그리고 이 모두를 가능케 할 법적 근거 마련의 문제 등에 관련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념 규정을 살펴보자. 그나마 새 예술정책에서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것에 따르면, 일단 우리의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은 작가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작업실 개념의 지원정책이기보다는, 단기 체류를 통한 작가 교류를 목표로 하는 레지던시 (Artists in Residency)를 살짝 병행한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아예 그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대개 1년이나 2년 정도의 기한을 두어 주로 국내작가들이 작업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창동 및 고양스튜디오의 경우가 그렇고, 사립미술관이 운영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경우 특별한 외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이나 전시 기획 등의 계기 없이 단기간 작업실 사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전시회 개최나 작가와의 대담, 오픈 스튜디오 등의 간단한 행사가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 할 만한 행사는 없다고 하겠다. 단지 폐교 활용의 경우만 장기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작가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하기엔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의 초점은, 한시적인 작업실 사용이 아니라 작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여건으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으로 좁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사실 문제의 접근이 전혀 달라야 할지도 모른다. 창작스튜디오 제공을 단순히 지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술가의 기본활동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지원을 위한 당위성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치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작업실 공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문제의 범위는 문화관광부만이 아니라 타 부처와의 전격적인 협조 등의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테면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 근교에 창작촌을 건립하여 작가들에게 싸게 임대하거나, 폐교의 경우도 입지 환경 분석을 통해 그 여건을 선별하여 창작촌의 형태로 꾸릴 수도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사업 가운데 일정 부분을 창작촌 조성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니면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개념으로 진행하여 프랑스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설계 과정에서부터 일정 비율을 작가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겸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여 이를 싸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는 창동 및 고양의 경우는 국제 레지던시로 운영하면서 훨씬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는 요구를 안게 된다.

#### 기초예술진흥법을 통한 법적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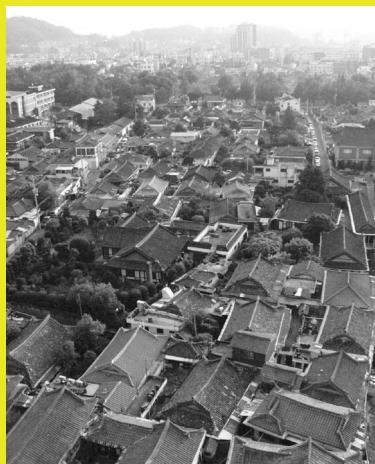
현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창작스튜디오 지원을 위한 법

적 근거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유휴시설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작업실이나 여타의 문화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창작스튜디오가 미술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창작활동의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예술가의 기본활동권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만하다. 최근 문화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이 해체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접근은 새로운 법제를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다시 말하면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틀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를 규정하면서,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 및 여건 마련을 예술진흥에 대한 국가적 책무로서 기입하는 가운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물론 창작스튜디오 규정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창작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이 있겠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기반 조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관한 것이다. 아무래도 레지던시 지원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이를 국제 교류의 차원에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소요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에 비하면 작업실의 안정적 지원이라는 점은, 작업실을 통한 교류 프로그램에 앞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하게 제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작업실의 안정적 지원은 방대한 예산이 드는 문제라기보다는, 부처간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현실적 차원의 정책적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데 힘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동의 한옥마을